JEONJU INT'L SORI FESTIVAL ANNUAL REPORT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L SORI FESTIVAL ANNUAL REPORT

















코로나19와의 공존. 우리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라는 낯선 패러 다임 앞에 서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와 축제 역시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이 기회이자 발상의 전환을 앞당 기는 호재라는 점도 잊지 않았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예술 중심, 작품 중심의 '공연예술제 본위'를 앞세웠습니다. 축제의 '폭발적 군집'이라는 오랜 관성과 미덕을 뛰어 넘는 새로운 가치, 전통예술과 지역문화의 창의적 브랜딩을 향한 출발이 담겨있습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동행해 준 모든 국내외 아티스트와 스태프, 소리천 사(자원봉사자), 그리고 한 발 앞서 이 모든 변화와 도전을 열린 마음으로 맞아 준 훌륭한 관객들에게 존경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가 함께 해 위대했던, 변화와 도전의 흔적들을 2021 연차보고서에 담습니다.

Contents

- **04**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20년의 풍경
- 06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10대 뉴스
- 10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종합평가
- 12 온스테이지
- 14 백스테이지
- 16 전문가가 본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 18 찾아가는 소리축제
- 20 소리축제 20년, 관객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 22 전주세계소리축제 연보
- 24 스태프 및 소리천사 활동
- 26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20년의 풍경

#숫자로 보고 재미로 읽는 전주세계소리축제 20년



5,400,062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이상에 부여되는 '골드 버튼' 거뜬히 넘다 구독자 1,000만명의 '다이아 버튼'을 향한 새로운 미래의 20년!

누적 관객 수



한 해 평균 2,500여 명의 아티스트 참가

20년 간 평균 6일 내에 축제라는 이름으로 집결

누적 아티스트 수



377

1회 평균 약 20여 개국 참가

20년 간 소리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움직인 해외 음악기들의 이동 거리, 지구 약 180여 바퀴

누적 국가 수



올해 주제인 '소리 #20(SORI #20)'은 축제의 근간을 이어온 '소리(唱, 노래, 목소리)'에 '#'이 갖는 장면(SCENE), 해시태그의 중의적 의미를 더해 만들었 다. 소리로 이어온 20년의 세월을 스무 개의 장면(공연)으로 집중해 보여주겠

축제 20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보여주었던 감동의 장면들이 소리 축제라는 길을 통해 희망과 연대의 하모니로 승화되는 느낌을 한글 '목소리'와 숫자 '20'을 통해 형상화했다.

역대 수상내역

2019-2020

↑ TWMC(세계월드뮤직 비평가 그룹) 선정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 세계 1위

2018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S등급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6년 연속 우수평가

※ 2013년 A등급, 2014년 B등급, 2015년 A등급, 2016년 A등급, 2017년 A등급

2019-2014

6년 연속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015-2012

4년 연속 영국 송라인즈 선정 '국제 페스티벌 베스트 25'

2014

• 제1회 창작국악극 대상 3관왕(우수작품상, 연출상, 남우창우상)

- '광대의 노래-동리, 오동은 봉황을 기다리고'

2021. 03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업 한-러수교 30주년 기념사업 '더 콜라주'영상공연 교류(전주 MBC, JTV 방영)

역대 국제교류 현황

2019. 10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서트 MOU 체결

슬로바키아 월드뮤직페스티벌 브라티슬라바 MOU 체결

2019.04

판소리&플라멩코 프로젝트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 코리아사운드 페스티벌'초청

2018, 10

타이완 국립가오슝아트센터와 3개년 MOU 체결

2018, 11

음악창작소 가악 프로젝트, 중국 재즈 임프로바이즈미팅 페스티벌 초청 공연

2017. 12

말레이시아 페낭재즈페스티벌 전라북도 음악가 공연 진행

2016.08

타이완 국립전통예술중심 공연 및 MOU 체결

2016. 03

프랑스 바벨메드뮤직 2015 소리프론티어 우승팀 쇼케이스 진행

2014-2017

캐나다 몬트리올 세계 성악가대회 '소리축제상' 제정

한국-폴란드 프로젝트 4개년 교류사업 추진

2006. 09

◆ 소리-워매드 페스티벌 유치



10대 뉴스

20주년 <Re:C

20주년 기념영상 <Re:Origin>의 뜨거운 증언

올해로 스무 해, 성년의 이름을 얻은 전주세계소리축제. 2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Re:Origin〉이라는 주제로 소리축제가 제작한 이 영상은 소리축제 앞에 놓인 수많은 갈림길에서 전통의 원형과 변형을 균형 있게 담아온 우직한 발걸음을 감동적으로 담아냈다. 안숙선/곽병창 등 前 집행부, 방수미/리알타 등 국내외 아티스트, 찰리 크루이즈만 해외 저널리스트 등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스토리, 소리축제에 대한 애정과 기대 등이 축제 20년의 의미를 뜨겁게 증언하고 있다.



#2

소리프론티어 시즌 2, 판소리의 비상을 꿈꾼다

지난 2010년 이른바 '한국형 월드뮤직'의 발굴, 개척이라는 기치로 시작된 소리축제 유일의 경쟁 프로그램인 소리프론티어. 올해로 10년을 맞아 '판소리 확장' 공연을 중심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판소리의 현대적 어법에 큰 관심을 가져온 소리축제는 소리프론티어를 판소리 창작 플랫폼으로 가꾸어 간다는 전략으로 '현대적 판소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모두 7개 작품이 심사를 거쳐 무대에 올랐고, 다양한 메시지를 안고 관객들을 만났다.

판소리바닥공장 'TALE' /소리극단 도채비 '풍각쟁이' /플레이워드 '햄릿, 혼잣말' /민속악회 맴돌 '심청:꽃을 든 여인' /한사코 '여기 잠시 머물다, 다시 돌아갑니다' /비로소 판소리 '이름' / 휠러스 '놀부 FLEX'





#3 위드 코로나, 30% 객석 운영

지난해 사상 초유의 비대면 온라인공연을 택했던 소리축제. 올해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객석의 30%를 열어 관객들을 만났다. 철저한 방역과 보수적인 객석 운영으로 5일 동안 방역 무사고 축제를 완성했다. 축제 전 판소리다섯바탕에 출연하기로 했던 3명의 젊은 소리꾼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되면서 축제 출연이 무산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발빠르게 공연 콘셉트를 바꾸어 대처하면서 '소리축제다운' 노련미를 뽐냈다는 후문.



실내공연 중심 예술제 실험의 해





'위드 코로나'시대에 축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대규모 관객 운집이라는 축제의 오랜 관성을 깨고 올해는 실내공연 중심의 예술제로 실험을이어갔다. 작품 중심의 밀도 있는 운영은 화려한 축제의 외관에 길들여진 오감을 새롭게 자극했다.

공연 하나하나에 관객들의 집중과 몰입도가 높아졌고, 축제가 보여주고 자 했던 의도는 선명하게 전달됐다. 기존의 150회의 공연이 40여 회로 줄었지만, 축제가 공연을 어떻게 선별했고 어떤 목적성을 갖고 기획했는 지 역설적이게도 더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감한 선택이 위기를 기회 로 만든 한 해였다는 평가.

#5 광대의 노래, 산조의 밤-전통이 깊어졌다

농악 상쇠 명인들만 모아놓은 보기 힘든 새로운 기획, 〈광대의 노래-四 金〉의 객석 반응은 뜨거웠다. 젊은 후배들과 다투며 기어코 물러서지 않던 팔순의 상쇠들에게 관객들은 뜨거운 오마주를 보냈다. 무대화 된 사물놀이나 큰판으로 어우러지는 농악 이외에는 보기 힘들었던 관객들에게 꽹과리 명인 4인방(임광식, 류명철, 유지화, 손영만)의 넘실대는 신명과 연륜에서 오는 깊은 감동은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다. 〈산조의 밤〉은 산조의 백미라고 불리는 가야금 산조의 양대산맥 지순자, 강정숙명인으로 꾸려졌다. 산조다운 산조를 만나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머무르는 두 명인의 연주는 깊은 산사에서 만나는 고즈넉한 여유와 깊은 여운을 안겨 주었다.



#6 판소리다섯바탕, 현대의 판소리가 왔다

소리의 품격 있고 노련한 변화로 올해 소리축제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방수미·박애리·정상희의 춘향가〉. 세 여류 명창이 호흡을 맞춰나간 춘향가는 소리와 연기, 청중을 사로잡는 입담이 교차하며 종횡무진 무대를 누볐다. 세 명창의 연창이 입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얽혀들면서 탄탄한 기본기와 기량을 기반으로 '트리오 판소리'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예고했다. 〈정보권의 눈대목 다섯바탕〉역시 당초 세 남자(정보권, 김준수, 유태평양)의 조합이 기대됐으나, 안타깝게 김준수, 유태평양의 자가격리 소식으로 정보권 혼자 무대에 섰다. 부담이 적지 않은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훌쩍 성장한 차세대 스타 소리 꾼으로서의 자질과 명성을 입증해낸 공연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7 춤과 탱고, 전통을 만나다

올해 유일하게 소리축제 무대에 선 해외팀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날아온 이들은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아시아 투어를 갖던 중, 소리축제를 만났다. 혁신적 탱고를 탄생시 킨 피아졸라의 정신은 아쟁 김영길 명인과 만나 더 빛이 났다. 이질적인 두 나라 악기의 절묘한 조화 속에서 관객들은 예기치 않은 예술적 카타르시스를 만끽할 수 있었다. 국악기와 민요를 도입해 안무를 짠 국립 현대무용단의 〈HIP합〉이나 안무가 김재덕이 이끄는 〈다크니스 품바〉도 춤과 전통의 만남으로 더 핫한 감동을 안겨줬다. 새로운 전통을 만나는 기쁨, 소리축제에서 누릴 수 있는 행운이다.





#8 지역 예술가들의 저력, 브랜딩으로 정착

지역 예술가들의 결집으로 새로운 예술적 에너지를 보여준 폐막공연 〈Fever Time 전북청년 열전〉. 올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과 춤 꾼들 60여명이 짝을 이루며 전통음악과 역동적인 춤의 조화로 관객 들에게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안겼다.

무대를 가득 채운 다양한 음악장르와 춤의 조화는 제목 그대로 지역 예술가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방식의 공연은 독특한 집단즉흥 형태로 소리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브랜딩 공연으로 자리잡고 있다.



찾아가는 소리축제, #9 즐거움이 떠들썩~



14개 시군 초중고교 학생들을 만나는 떠들썩한 현장. 크고 작은 강당에 모인 아이들은 출연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참여하면서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느끼는 즐거운 배움의 열기로 가득하다. 출연자들의 열정도 어느무대보다 뜨겁다. 강당에서의 무대시설은 조금 열악하지만, 아이들의 박수와 호응으로 더 신이 난 건 출연자들 쪽이다. 공연 후에 좀처럼 식지 않은 열기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드는 아이들, 왠지 울컥 솟아나는 눈물을 닦아내는 선생님들. 소리축제 스태프들의 땀과 보람이 14개 시군 곳곳에서 빛나고 있다.

#10 위드 코로나, 축제가 바뀐다

올해 축제는 자연스럽게 '위드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기존의 단기간 폭발적인 축제 운영방식을 돌아보고 온오프라인의 적절한 병행, 이에 따른 방향성과 구현 방식, 관객 개발 등에서 차별화를 고민하게 된 시간. 더불어 체험과 먹을거리 등으로 북적이던 공연장 바깥은 '위드 코로나'이후 관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아쉬움을 채워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졌다.

소리축제는 쉼 없이 틀을 깨고 과감히 시도하며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 있는 축제. 지난 2년의 실험과 과도기를 거쳐 2022년 어떤 깜짝 등장으로 세간을 놀라게 할지 자못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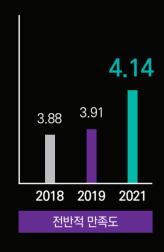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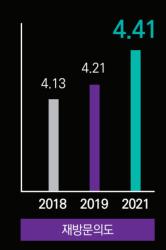
"소리축제 만족하고 다시 오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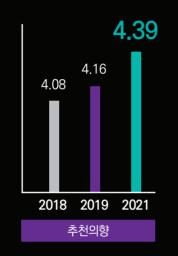
코로나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등 알찬 운영에서 높은 점수

올해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으로 측정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4.14점, 재방문 의도는 4.41점 그리고 추천의향은 4.39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21 소리축제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 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최근 3년간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 의도', '추천의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특히 2021 평 가점수는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조직위원를 중심으로 프로 그램 등에 대하여 알찬 운영을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년의 나이에 달한 축제의 원숙함 돋보였다"

지난해 비대면 미디어공연 5개 특선의 성공에 힘입어 온라인 공연을 올해도 이어나갔다. 예술제로 서의 실험, 온라인을 통한 축제의 외형 확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것이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이 같은 실험을 통해 '위드 코로나'시대 새로운 축제 패러다임을 내년 축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시 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의 "다수의 대중들을 폭발적으로 모으겠다 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술제로서 공연의 작품성을 높여 축제 브랜딩을 새롭게 하고, 대중축제는 위 드 코로나와 공생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을 짜겠다"는 언질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성년의 나이에 달한 축제의 원숙함을 내비쳤다. 전통을 근간으로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면서 전통과의 긴장이나 융합은 놓치지 않고 긴밀한 직조를 꾀하는 등 전통의 원형과 변형 의 조화로운 배열이 눈에 띄었다. 전통의 원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더 깊고 충실해졌으며, 콜라 보나 변형을 통한 전통의 확장은 더 과감하고 다채로워졌다. 여기에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과 아 쟁의 김영길 명인과의 협연 등 세계를 향한 축제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서 지역 전통음악가들과의 협업으로 소리축제의 색깔을 입히는데도 게으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외형적으로는 '공연예술제'로의 전환과 온라인 축제 병행, 내 용적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미래의 공연을 모색하고 견인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 으로 잡은 셈이다.





온스테이지 On Stage

2021년 누구보다 뜨거웠던,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의 무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플레이위드 <햄릿, 혼잣말> 소리프론티어 시즌2 참여팀

4인극으로 시작했던 햄릿을 1인극으로 바꾸기까지 각자 여러 결심 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햄릿, 혼잣말〉이 한걸음 더 나가기 위한 용기이자, 응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인정받은 듯 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선택과 보내주신 응원 감사했습니다. 그것에 힘입어 〈햄릿, 혼잣말〉은 더 많은 그리고 오랫동안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갈 것입니다. 지켜봐주세요.



소리꾼

정상희

개막공연&판소리다섯바탕 춘향가

춘향가 한바탕을 세 소리꾼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함에 있어 서로 다른 더늠으로 가사가 막히지는 않을까? 거친 나의 성음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내 생각과는 다르게 오케스트라와 구음으로 이루어진 아리랑으로 개막공연에서 마음을 모은 세명의 소리꾼은 소리의 어떠한 가사, 어떠한 더늠을 내놓아도 서로 더해지고 덜어지 며 본인의 소리색깔을 내고 있었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어느덧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했고 관객들 또한 어느새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세 소리꾼의 이야기에 빠져 박수와 추 임새를 아끼지 않았다.

관객들에게는 세 소리꾼이 들려주는 전통 판소리 춘향가와 흥보가 중 흥보박에서 나오는 '왼갖 보물', 수궁가 중 한 궁기를 툭치면 원 하는 것이 모두 나오는 '의사줌치' 와 같은 공연이 아니었을까 생각 을 해본다.



정영광 / 건반

폐막공연 Fever Time

주로 전주에 있는 펍과 카페에서 재즈피아노를 연주하는 나에게 전 주세계소리축제 폐막식에서 연주하는 것은 엄청 설레는 일이었다. 으레 한 팀 당 한 곡 연주라는 틀을 깨고, 매곡에 모든 팀이 참여해 완결성을 갖춰가는 과정은 전율 그 자체였다. 특히 안태상 프로젝트의 일렉트로닉과 락킹한 사운드에 여러 국악기와 한국무용을 크로스 오버하며 역동적인 사운드와 신선한 볼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웠고 연주가 시작되는 순간 나를 무아지경에 빠트리고야 말았다. 보통은 셋 넷, 많을 땐 여섯 일곱 명이서 재즈 연주를해오던 나에게 갑자기 40명의 다양한 악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고 파워는 엄청났다.

이번 무대를 통해서 재즈뮤지션으로서 색다른 경험을 맛보았고 국 악기와 한국무용의 매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 다면 재즈가 국악기와 한국무용이 크로스 오버되는 무대를 꼭 한 번 서 보고 싶은 마음이다.



소리꾼 정보권

정보권의 눈대목 다섯바탕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보권 입니다. 소리축제와 인연을 맺고 축제의 공연에 참여하게 된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청 Alive'를 시작으로 2021년도 '정보권의 눈대목 다섯바탕'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힘들고 당황스러운 공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꾼 정보권이 예술가로 세계관을 넓히고 창작활동에 있어 두려움과 배척하려는 마음을 없애준 아주 감사한 축제라 생각합니다. 축제와 함께 꾸준히 발전해왔고 지금은 한 명의 소리꾼으로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소리꾼 정보권을 만듦에 있어 많은 지분을 갖고 계신 전주세계소리축제 측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백스테이지 Back Stage

묵묵히 무대 뒤에서 축제를 만들어간 열정 넘치는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성원 기획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던 방역 전문가들의 엄포는 사실이었다. 조금 희망이 엿보이던 6월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조심스레 준비했던 해외출연진의 무대는 다시 먼 미래로 미뤄야 했다. 유일한 해외출연진이었던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이 엄청난 서류와 강력한 방역절차를 뚫고(!)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축제사무실 모두 박수를 쳤다. '광대의 노래 〈사금〉'을 위해 4개 지역 농악인들이 수시로 ZOOM을 통해 회의하고 가락을 재구성하며 연습을 했다. 세상에, 농악연습을 온라인으로 하다니! 스무해를 맞이한 축제의 성년식을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치를거라 그 누가 상상했을까. 하지만 무대를 빛내준 멋진 예술인들과 열정으로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였다. 2001년을 돌아본 2021년의 소리축제는 그래서 RE:Origin!

김경훈 행사팀

축제기간 동안 곳곳에서 빗발치는 행사물품 조달이나 시설 보완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이곳은 축제현장 보다는 흡사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처럼 느껴진다. 거기에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로 행사팀은 '방역'이라는 매우 크고 중요한 업무가 추가되었다. 축제는 언제나 안정적이고 우아한 백조처럼 일사불란한 군무를 추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물 밑에서 허우적대는 백조의 다리처럼 정신없이 휘젓고 있다. 본의 아니게 사령관처럼 현장을 지휘하다 보면, 목소리는 다 쉬어 있고, 두 다리는 갈 곳을 잃고 휘청거린다. 그러나 어쩌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이 아빠를 존경해 마지않는다. 소리축제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꽃피는 우아한 한 떨기의 꽃! 기꺼이 거름이 되리라. 멋진 아빠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리니.

이윤주 기획팀

자식같이 애지중지하며 준비한 공연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세 개 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세 개 공연장을 모두 꼼꼼하게 챙기고 싶은데 정말 분신술이라도 펼치고 싶었달까.

축제를 하는 8년 동안 내가 맡은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항상(?) 잘 진행되는 축제와 공연을 보며 든든한 협업,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아티스트 및 스탭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환홍보팀

축제는 비일상이라지만 축제를 만드는 구성원 중 하나가 된 순간, 관객 입장에선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비일상이 펼쳐졌다. 해마다 달라지는 축제와 사람들, 그 속에서 미리 준 비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현장의 돌발 상황 앞에서 무력화되기 일쑤다. 그러나 그 당황스 럽고 우려했던 것들은 스태프들과의 즉석 '케미'로 한순간 사라지기도 한다. 내년 축제 에선 나도 처음 직면하게 된 돌발 상황에 항상 호쾌하게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축제의 '케미 오저'이 된 수 있기를 사망해 보다.





전문가가 본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타 장르와 전통색채의 접목은 소리축제만의 브랜딩으로 연일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오랜 기간 전혀 다른 음악을 한 무대에 올리는 더블빌 공연으로 비교음악제의 성격을 강화했던 저력을 바탕에 둔 소리축제만의 자신감을 보여준 프로그래밍이었다. 올해는 탱고, 춤, 퍼포먼스,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면서 여기에 전통의 색채를 입혔다.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기자





과연 소리축제가 '예술성'을 기준으로 모아낸 공연들이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까. 정작 이틀간 머물며 기자가 깊이 실감한 것은, 기획의 힘도, 뛰어난 예술성도 아닌, 축제를 축제답게 만드는 '관객의 힘'이었다. 어떤 공연이든 열린 마음으로 즐기는 관객들은 스무 해 지속된 소리축 제가 쌓은 가장 큰 자산이었다. 박서정 월간 객석 기자

올해로 청년을 맞은 소리축제는 코로나19란 외적요인에도 불구하고 20 회차의 연륜을 통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공연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엄선된 26개 프로그램에 객석 30%를 오픈해, '위드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온오프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하면서 축제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인 개방성을 높였고,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과감한 행보를 보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조석창 전북중앙신문 기자

특히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면서 전통과의 긴장 이나 융합은 놓치지 않고 긴밀한 직조를 꾀하는 등 전통의 원형과 변형의 조화로운 배열이 눈에 띄었다.

전통의 원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더 깊고 충실해졌으며, 콜라 보나 변형을 통한 전통의 확장은 더 과감하고 다채로워졌다.





개막공연 <Re:Origin>

판소리라는 장르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중략-판소리의 진정한 근원(Origin)은 '언제나 새로운 생각과 실천, 공존과 포용의 정신' 이다. 그렇게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새로운 소리들의 발신지이자 한 복판 자리에 판소리가 있다.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월드뮤직 축제'라는 정통성은 그렇게 확인되었고 20년 동안 소리축제는 그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성장해온 것이다.

곽병창 우석대학교 교수





방수미·박애리·정상희의 <춘향기>

분창, 연창, 합창의 교차 구성은 열정과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쏟아 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관객을 좌지우지하는 입담과 노련한 연기는 무대 장악력을 제고하며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춘향전이라는 이미 익숙한 스토 리 전개는 공연자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의 시선 을 따라가며 농익은 소리 놀음에 깊이 취할 수 있 는 여유로움을 제공하였다. 이에 관객과 공연자 의 완전한 상호작용으로 일체감은 최고조에 이르 렀다. **노복순 국악평론가**



정보권의 눈대목 다섯바탕

"판소리 하는 사람들도 현대 사람이다"란 메시지를 확실히 갖고 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소리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소리축제 같은 큰 무대에서 소리꾼들이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다른 소리꾼들도 자기 발전을 위해 충분한 자극을 받게 되지





폐막공연 <전북청년열전 Fever Time>

원컨대 이번 폐막공연 중 주요 음악이 '정식 음원', 몸짓과의 협연은 '정식 공연'으로 축적돼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영인블루스는 유일하게 창작·초연된 곡이며 완성도 또한 높다. -중략- 한삼을 활용한 〈널마루 무용단〉의 황홀한 무대 또한 가치가 크다. 닷새간 짧은 축제, 폐막공연 하나만으로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정체성이 굳건하다. 이제는 응당 내년을 기대하는 바, 현장직관이 우선이며 이전의 전율을 능가하는 무 대, 다시 보고 싶은 무대를 기대한다. 미르 JTV 프로듀서

찾아가는 소리축제

얘들아 학교에서 만나자! 미래세대를 위한 예술 길잡이

삼양동화

"거울을 깬 여왕, 빨간 모자를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좋았어요. 다음 공연하실 때도 열심히 하시고 활기차게 지내세요. 파이팅 하세요.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이서린 새만금초**





"노래도 재밌고 환하게 웃으셔서 더 즐거워요. 코로나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솔빈**



"생생한 공연을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재미있다고 또 보고 싶대요!! 이야기도, 노래도, 연기도 최고였어요!! ♡" 담임 선생님 정읍초 1-2



"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웃겼어요! 그리고 가족, 친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토끼는 귀엽고 주인공도 멋있고 착한 거 같아요♡ 주신 야광 팔찌 죽을 때 까지 간직할 거예요!" **김윤하 장수초**





"너무 재미있었어요. 힘드실 텐데 공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벌레가 춤을 출 때 더욱 재미있었 어요. 다들 너무 예쁘고 멋졌어요."





"앨리스와 토끼, 춤까지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자랑 음료수까지! 고마워요, 소리축제!"

이여원 장수초

"학교로 소리축제가 와서 너무 재미있어요. 또 보고 싶어요♡♡"







이야기 파시오

"덤블링과 접시돌리기가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특히, 무사가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게 인상 깊었어요.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김루하 무주괴목초**





"연극+인형극을 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책만 읽을 때는 실감이 안 나서 재미없었는데 연극을 해주시니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기림초**



음악 여행자 하림&

블루카멜 앙상블

"진짜 재미있었어요! 다시 보고 싶어요. 책으로 본이야기도 인형극으로 보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양민아 임실기림초

"소리축제에서 온 멋지고 예쁜 형, 누나들 재밌는 공연 잘 봤어요! 다음에 꼭꼭 또 만나요!!" **박연수 장수초**



정읍초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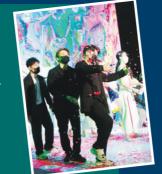


"소리축제 너무 재미있었고 연극할 때 너무 실감 나게 해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묘기가 대단했어요. 악기 연주할 때 소리도 좋았고 멋졌어요!" 정도윤 임실기림초



66 20년 전에는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잠재적 가능성이 커졌어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곽병창 _ 극작가, 우석대 교수, 2004~2007 총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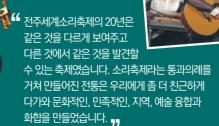
44 벌써스무살! 10대 때는 엄마손 잡고 축제에 방문해 줄 서서 공연 을 봤었는데 성인이 된 후에는 제 차로 엄마와 함께 축제에 오고 있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때 20주년을 맞이한 소리축제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 앞으로도 쭉 멋진 음악 축제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

@serena_suri



" 소리축제의 월드뮤직 부문은 아티스트의 명성에 기대기보다 한 해의 주제와 맞는 음악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과 해외 아티스트의 음악을 융합해 새로운 월드뮤직 을 만들어 내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그동안 높아진 한국의 위상만큼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면 '전주세계소리축제'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경아_음악여행 작가



윤중강_국악평론가

44 상상해 보세요. 모든 음악이 같다면 그 세상은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좋은 축제는 정체성이 강하거든요. 동시에 현지 문화를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그것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찰리 크루이즈만(Charlie Crooijmans) _ 네덜란드 월드뮤직 전문 기자



20学经安阳

15/11/07K1

されるされいけり

44 전통은 원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구심력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원심력이 서로 긴장 관계를 맺으며 형성됩니다. 전통에 충실한 작품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현_군산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



66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

지 않았다면 이렇게 멀리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온가족같은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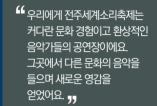
올해도 어김없이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리축제 20년



관객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리알타(Realta)_ 아일랜드 민속음악 단체



66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외국 아티 스트 분들과 만나게 해 주셨어요. 언어가 안 통해 악보로만 서로 소통하는 데 그들은 내 음악을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저도 그들의 음악을 듣고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음악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안은정_ 거문고 연주자



To be continued 2021.

연보

2001	주제	소리사랑 온누리에	위원장	천이두		
	일시	10월 13일 - 10월 21일(10일간)	총감독	강준혁		
	<u>=^</u>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공연팀	15개국 142개팀 4,000여명		
2002	한국전통음악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적 음악을 포괄하는 종합축제(예술축제+산업형축제)					
	주제	목소리(Voice)	위원장	천이두		
	일시	8월 24일 - 9월 1일(8일간)	- <u>- 11년</u> 8 총감독	임진택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통문화특구(현 전주한옥마을)	공연팀	16개국 156개팀 4,500여명		
2003	세계음악의 보편성과 축제성을 토대로 판소리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모색					
	주제	소리, 길, 만남	위원장	천이두		
2005	일시	9월 27일 - 10월 5일(10일간)	총감독	임진택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전통문화센터	공연팀	14개국 172개팀 5,000명		
2004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연계 및 확산을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					
	주제	소리! 경계를 넘다	위원장	안숙선		
2004	일시	10월 16일 - 10월 22일(7일간)	총감독	곽병창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대학교 일원	공연팀	14개국 190개팀 2,800여명		
2005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연계를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					
	주제	난(亂), 민(民), 협률(協律)	위원장	안숙선		
	일시	9월 27일 - 10월 3일(7일간)	총감독	곽병창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 일원	공연팀	25개국 190개팀 4,600여명		
2006	지역 정체성 확보와 우리음악의 월드뮤직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동참하는 세계화에 초점					
	주제	소리, 놀이	위원장	안숙선		
	일시	9월 16일 - 9월 24일(9일간)	총감독	곽병창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공연팀	22개국 184개팀 2,692여명		
2007	판소리 중심의 월드뮤직 축제					
	주제	소리, 몸짓	위원장	안숙선		
	일시	10월 6일 - 10월 14일(9일간)	총감독	곽병창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내 일원	공연팀	10개국 131개팀 2,840여명		
	판소리 공연의 전진배치로 정체성 확보 및 대중성 강화					
	주제	소리, 오락	위원장	안숙선		
2008	일시	9월 26일 - 10월 4일(9일간)	총감독	안영수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주시내 일원	공연팀	16개국 280개팀 3,800여명		
		한국모디군와의언6, 한구한국미글, 한구시대 글한	프로그램	70개 프로그램, 225개 공연 및		
0010	판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대중화 시도					
	주제	시간을 넘는 소리, 세대를 잇는 감동	위원장	김명곤		
2010	일시	10월 1일 - 10월 5일(5일간)	총감독	김정수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일원,	공연팀	9개국 3,200여명		
	<u>од</u>	전북대삼성문화회관	프로그램	44개 프로그램, 213개 공연 및 형		
	판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대중화 시도					
0046	주제	이리오너라 UP GO 놀자!	조직위원장	김한		
2011	일시	9월 30일 - 10월 4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공연팀	9개국 1,616명		
2012	프로그램 50개 프로그램 301회 공연 프로그램 50개 프로그램 301회 공연					
	국익대공 주제	오리 중인 소디국제의 위성 경약 소리 한 상 가득	조직위원장	김한		
	 일시		조작귀편경 집행위원장			
	<u>일시</u> 장소	9월 13일 - 9월 17일(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연팀	18개국 1,529명		
			0 4 6	10/11-11,0200		

	국악 대중화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면모 갖추기					
2013	주제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조직위원장	김한		
	일시	10월 2일 - 10월 6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연팀	37개국 2,834명		
	— — — — — — — — — — — — — — — — — — —	한국포니한되러인이, 한구한국비를	프로그램	51개 프로그램 295회 공연		
2014	국악의 다변화로 현대와 소통하는 축제					
	주제	대마디 대장단	조직위원장	김한		
	일시	10월 8일 - 10월 12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연팀	29개국 1,300여 명		
	——————————————————————————————————————	연속도니군외의언어, 선구인국미글	프로그램	52개 프로그램 203회 공연		
2015	비교음악제 확대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위상 강화					
	주제	소리 Big Party	조직위원장	김한		
	일시	10월 7일 - 10월 11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연팀	28개국 1,300여명		
	— <u> </u>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프로그램	49개 173회 공연		
	'모던한 공연예술'로서 판소리의 가능성 실험, 축제공간의 만족도를 높여'체류형 축제'로의 변화!					
	주제	세상의 모든 소리	조직위원장	김한		
2016	일시	9월 29일 - 10월 3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연팀	28개국1,300여명		
	0.77	한국모니한되니만6, 한다국모 14개 시간	프로그램	60개 160여회 공연		
2017	관객과의 소통을 확장하며 판소리와 한국음악의 현대적 보편성 확보					
	주제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	조직위원장	김한		
	일시	9월 20일 - 9월 24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연팀 프로그램	33개국 1,100여명 43개 165여회 공연		
2018	국경과 세대, 성별을 초월한 대동의 판을 연출해 공동체 의식의 복원					
	주제	소리판타지(Sori Fantasy)	조직위원장	김한		
	일시	10월 3일 - 10월 7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공연팀	18개국 1,116명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프로그램	154회		
2019	세대, 이념, 지역 간의 갈등과 경쟁을 벗어나 전통 예술 소에 담겨진 치유와 위로의 가치 전달					
	주제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s)	조직위원장	김한		
	일시	10월 2일 - 10월 6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공연팀	20개국 1,082명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프로그램	132개 프로그램		
2020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미디어·온라인 공연 5選 엄선,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방역 안전과 미디어 영향력을 우선한 차별화 된 축제					
	주제	_잇다(Link)	집행위원장	박재천		
	일시	9월 16일 - 9월 20일(5일간)	 _ 공연팀	218명(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장소 조직위원	비대면/온라인(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약당) 장 김한	프로그램	898명(19X19챌린지) 5개 프로그램		
	주제	소리 #20	조직위원장	김한		
		11-1 #ZU	エーコゼሪ	급긴		
2021			진해의위자	바재처		
2021	일시 장소	9월 29일~10월 3일(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집행위원장 공연팀	박재천 100개 단체 391명		

Staff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어진 전통예술의 향기, 귀하고 감사히 여기며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스무 해의 아름다운 시간 속에 소리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땀 흘린 시간들을 축제 역사에 새기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임원

명예조직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조직위원장 **김 한** 집행위원장 **박재천**

부위원장 심인택 국립남도국악원 예술감독 부위원장 최동현 군산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 상임위원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원 이화동 전북대학교한국음악학과교수 상임위원 지성호 작곡가

외부감사

오용규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조직위원

김국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문화부 차장

김병오 전주대학교 문화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변주승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CEO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양진성 임실필봉농악보존회장

유춘택 전라북도외국어자원봉사회장

이기선 전북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미배 전북대학교 음악과 부교수

이영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용호 센터국도국제교류센터경

정지영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내부감사) 정진욱 전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위원

김병오 전주대학교 문화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노복순 국악평론가

이미배 전북대학교 음악과 부교수

이희진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조세훈 남원농악보존회 기획실장

이경진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국장

오선진 방송 프리랜서

박영준 우진문화공간 제작감독

최성엽 JTV(전주방송) 편성제작국 프로듀서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콘텐츠운영부 || 기획팀 무대팀

한지영 부장

기획팀

조성원 팀장

이윤주 차장 **조윤지** 팀원

조현정 팀원 **김지환** 팀원

김구희 인턴

무대팀

전선호 팀원 **안지웅** 팀원

대외협력부 || 홍보팀 행사팀

김회경 부장

홍보팀

이조은 팀장 **이지환** 팀원

전원준 팀원

박민영 팀원 **신민영** 팀원

행사팀

김경훈 팀장 **구국회** 팀원

이수현 팀원

행정팀

조현철 팀장

최다미 팀원

이미란 팀원

전라북도문화예술과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관 문화예술과장 윤효선 예술지원팀장 이성범 주무관

전주세계소리축제 제작진

무대총괄감독

박기남

무대감독

최형범 김응완 임규호

사이트매니저

허 정 김성빈 이정연 이은주 박선주 한세윤 김민준 김정현

행사운영

김동인 김수민 이동훈 채동석 유지훈 오기정

음향

이동옥 백영빈 김래영 김 율 이석재 이재일 임희준 이성조 박준혁

조명

임재덕 이주호 이정민 유주형 오세혁 문필건 윤세진 정호진 신 희 김희관 김유진 송인훈 최정안

전주세계소리축제 제작진

무대

배정섭 배윤섭 김진욱 배종권 배종우 어윤호 정진백 유민석 함영규 마정석 반상윤

무대디자인

김대한 김종훤

영상팀

우기하 최석주 모용우 전용곤 조용윤 임다빈 김동환 김경상 최미경 배서진 이정민 양혜린

중계팀

변재범 최승준 김기정 신윤철 이진현 성용창 김상수 배진환 홍지훈 전영신 이태우 변기원

LED팀

이성희 안정선 최병옥 정대수 김승현 이지주

구조물

노강섭 권순문 오찬식

온라인중계

고재훈

발전기

박종철

악기

배종두 김서학 김민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STAFF

경영관리부

한흥민 부장 **정범수** 과장

임익종 과장 **이동수** 과장

최미송 이성윤 유민정

문화사업부

박홍재 부장

기획사업팀

이기연 과장 **유경희** 과장 **이안나** 대리

강성웅 대리

김미라

기계팀

박성일 팀장

정대영 박은성 백우진 배태호

무대팀

김지현 대리

한승주 장오성 연혁찬 안승주

음향팀

박영모 팀장 **남성훈** 과장

정영모 이동수 조중호

조명팀

장정규 과장 박성진 과장 송두영 대리 정택진 김찬웅

고객지원부

강현규 부장 **권휘원** 과장 **김미미** 과장

안은홍 함지수 송한별

소리천사

종합상황실

상황실

김서현 김예진 김은지 신지연 이진서 차재원 최세연 최하람 황정용

방역안내A

김민재 김윤주 김정연 손병권 오희진 이진완 정서윤 정인수 최현서 홍민표

방역안내B

김도연 김도원 김철민 박재현 백경현 이은솔 이효민 정초윤

행사지원

김규식 박명지 박수환 박찬현 서성민 서준기 서하진 오임경 이재찬 이정민 임가현 정상미 최은숙 한수아 한영진

공연장운영

모악당 연지홀

김영원 박준형 박찬호 박채웅 박햇살 서광덕 서우진 이요한 이현경 장수혁 정수민 조우정 한선주 한진석 홍진호

야외공연장

김명근 김예서 김혜원 박나영 이동하 이슬기 이우석 임성훈 주하림

명인홀

김진구 손주인 송수민 유예빈 이동준 정주연 조다은 최진혁

공식파트너 ᄌ전북은행